지식경제부 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1월 2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김정회 과장, 김장희 서기관(02-2110-5634)	

전기차 카쉐어링, 상용서비스 착수

- 12.8월~11월간 2600명 시민이 참여, 지구2바퀴 주행 -
- '12.12.3(월)부터 유로화 서비스 전환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홍석우)는 '12.8월부터 제공한 전기차 카쉐어링 서비스를 '12.12.3(월)부터 본격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힘

○ 전기차 카쉐어링(Car-Sharing) 서비스란 전기차를 시간단위로 필요한 만큼 쓰고 반납하는 서비스로,

○ '12.8월부터 약 3개월동안 서울시내 12개 충전소에 전기차 RAY 20대를 무료 체험 서비스로 제공해왔음

* 한전컨소시엄(한전, 한국교통연구원, 자동차부품연구원, 동국대학교, AJ렌터카)에서 참여중인 "전기차 공동이용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"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

□ 무상체험기간('12.8.6~11.18)동안 시민체험단 총 2,626명(누계기준)이 가입하여, 총 2,037회 차량을 대여하고 91,631㎞를 주행하였음

○ 이용자 설문조사* 결과, 86%이상이 전기차에 대해 차량정숙성, 주행능력 및 환경친화성 등 측면에서 만족한다고 응답

- 부족한 차량숫자, 불편한 조작절차 등은 개선이 필요하며, 향후 주행거리 연장 및 인프라 확대를 요구

○ 유료화 전환시에도 93%가 이용의사를 표명하였으며, 향후 요금 수준에 따라 최종 이용의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 많았음

* 기간 : '12.10. 5~15(11일간) / 대상자/응답자 : 전기차 경험자 319명 / 189명

□ '12.12.3일 개시되는 유료화 서비스에서는 2가지 요금(시간제, 정액)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시간당 평균요금은 6~7천원, 1일 이용시 7만원이 부과됨

○ 다만 편도 대여시 왕복대여요금에 차량재배치 비용(2만원)이 추가 청구되며,

○ 차량지연반납, 예약취소(3시간 이전), 충전기 미연결 등 다음 사용자에 정상적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패널티 요금이 적용될 예정임 (홈페이지(www.evshare.co.kr)의 약관 참조)

<전기차 쉐어링 유료화서비스 요금 (왕복대여 기준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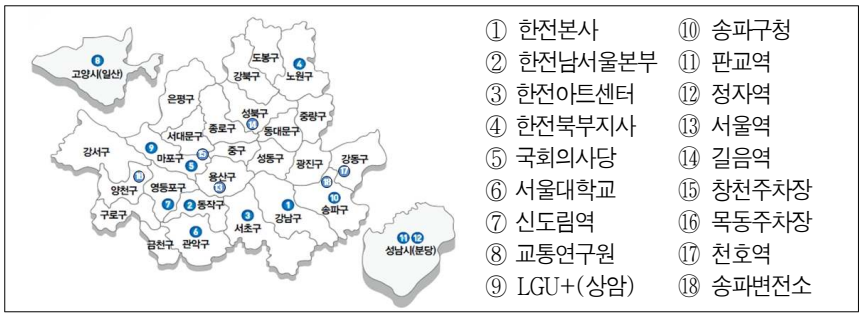
이용 시간	시간요금제(A)		정액요금제(B)				비 고
	주말	주중	심야		1일(24H)		
			주말	주중	주말	주중	
1시간	10,000	10,000	40,000	30,000	70,000	65,000	■ 충전요금 포함 ■ 주간 : 08시~20시 ■ 심야 : 00시~익일07시
3시간	25,000	22,000					
5시간	35,000	30,000					
…	…	…					

* 12시간 이상시(24시간이내) 1일요금이 적용

□ 한편,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무상체험기간보다 충전거점(12개→18개), 차량 대수(20대→30대)를 보강할 계획이며,

○ 서울시와는 향후 서울시 카쉐어링 사업에 보급되는 충전기를 회원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하여, 이용자의 편익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임

< 전기차 쉐어링 거점 구축 현황 >



* 각 거점은 유동인구, 예상이용계층, 교통수요등 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며, 추가구축 충전소 6개소(13~18번)는 차량은 미배치하고 충전용으로만 활용

< 전기차 카쉐어링 시민체험단(무상) vs. 유상서비스 비교>

구분	시민체험단 운영기간 ('12. 8. 6~'12.11.18)	유상서비스 ('12.12. 3~계속)
차량대여료	무상	유상
이용시간	최대 4시간이내	24시간 이내
충전소	12개소	18개소 + α * 서울시 전기차 카쉐어링 충전소
이용차량	20대	30대(일정 변동 가능)
편도서비스	불가	가능(추가비용 청구)

□ 전기차 카쉐어링 서비스는 만26세 이상, 운전경력 1년 이상인 내국인은 누구나 홈페이지(www.evshare.co.kr)를 통해 상시가입 가능하며,

○ 기 가입된 회원은 유료회원으로 자동승계되며 향후 1년간 가입비 및 회비 면제 혜택 제공할 예정임

* 단, 신규가입회원은 회원카드 발급비용 등 가입비 1만원 청구 예정

□ 지식경제부는 전기차 카쉐어링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기차 수요저변을 확대하고, 민간 사업자의 전기차 보급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○ 향후에도 다양한 유형의 도시에 적용 가능하고 대국민 홍보 등에 적합한 전기차 보급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임

참고 1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사업개요

◈ 전기차 쉐어링은 개인이 전기차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전기차를 제공하는 서비스

* 한전, 자부연, 아주렌터카 등 전문기관이 개발(정부 28억원, 민간 21억원)

□ 추진 배경 및 사업목표

○ 녹색위 이행점검('11.9월) 후 전기차의 수요기반을 점검하고 관련 서비스 사업자의 초기시장 진출 촉진과 확대가능성을 모색

○ 전기차의 높은 가격으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, 同 상황은 전기차 이용활성화 장애요인 중 하나임

⇒ 同 사업은, 녹색성장의 성과물인 전기차를 일반인이 구매를 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목적임

□ 사업 내용

○ 전기차를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는 서비스로 한 지점에서 임대하여 동일 또는 타 지점에 반납하는 방식(전기차 30대 운영)

- 서울시-수도권의 출퇴근자, 근무시간 중 출장자 등을 대상

* 설치지점 : 한전(본사, 상계동북부, 강남, 여의도남서울본부), 여의도 국회의사당, 일산교통연구원, 상암동 LGU+ 본사, 서울대, 분당(정자역, 판교역) 등 12곳

- 이용자는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고, 온라인으로 사전예약 신청 후 전기차를 배정받아 이용 후 반납

<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이용 例 >



참고 2 | 카 쉐어링 국내외 현황

□ 기존 국내 카 쉐어링 사업자 현황

○ 국내에서 카 쉐어링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전기차를 이용한 공동 이용 시스템은 시행된 바 없음

* 양산형 전기차 보급이 가시화되면서 지자체(서울시 등)를 중심으로 전기차 공동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 중

사업자	지점	가입회원수	차량	7차종
그린카	170개소 (서울,인천,경기 등)	4만명	약200대	엔진차 19종 (전기차 없음)
한국 카 쉐어링	20개소 (서울, 대전 등)	2.8만명	약120대	엔진차 5종 (전기차 없음)

□ 해외 카 쉐어링 추진 현황

○ '87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카 쉐어링은 최근 북미와 유럽, 일본을 중심으로 확대 중이며 민간, 민간+정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

사업자	지점	가입회원수	차량	차종
Zipcar	북미, 영국의 50여개 도시와 100여개 대학	67.5만명	9,000대	엔진차 중심 (GM볼트 등 도입 중)
Bolloré (Autolib)	파리와 주변 45개 중소도시	1.5만명	1,740대	전기차 (블루카)

< 프랑스 오토리브 프로젝트 >

◈ '11.12.5일부터 시행 중인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로 차를 사용한 뒤 목적지와 가까운 정류장(1,100여곳)에 반납

◈ 차량은 Autolib 사업자인 'Bolloré社'에서 생산하여 지난 5월 EU 인증을 획득한 4인승 전기차로 1충전 주행 거리는 250km

◈ 사용 요금은 1년, 한 달, 일주일, 하루 단위로 회원권을 구입하고 실제 운행 시간에 따라 요금을 추가로 지불